

우직한 소의 걸음으로 지리산 넘어 영남에 들다

우직한 소의 걸음으로 지리산 고개를 넘어 경남 거창에 닿았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깊은 믿음과 귀의로 불교종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며 나선 천리순례단의 여정은 멈춤 없이 이어졌다.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입제식을 갖고 천리순례의 첫발을 내딛 순례단이 10월 2일 사성암까지 25km 구간을 행설했다. 새벽 3시 예불문과 한글반야심경 봉독으로 이번 천리순례의 의미를 되새긴 대중들은 섬진강이 만들어낸 짙은 안개를 뚫고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 철쭉 같은 어둠과 진한 안개 탓에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었지만 앞선 이들의 발길을 좇아 걸음에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며칠 전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순례길 곳곳에 생겨난 물웅덩이로 인해 대중들의 발걸음이 잠시 더러지기도 했다. 하지만 천리순례 대중들은 이마저도 수행의 과정으로 생각하며 오직 화두나 염불, 주력에 집중하며 묵묵히 나아갔다.

10월3일 숙영지를 나선 순례단은 남도의 젓줄 섬진강 물길 따라 시나브로 발걸음을 옮겨 화엄대종찰 화엄사로 향했다. 이번 천리순례가 지난해 자비순례와 다른 점은 의례의식이 더욱 감소했다는 점이다. 도량석이 대표적이다. 순례단은 새벽 3시 목탁 소리로 천지 만물을 깨우고 청아한 독경소리로 세상에 부처님의 법을 전했다. 지금 머무는 그 자리 가장 청정한 도량이자 부처님 계신 자리이며 내딛는 걸음걸음이 부처님 닮아가는 과정임을 일깨우는 시간이다. 이어 오분향례와 칠정례를 통해 삼보에 귀의하고 신심을 복돋는다. 또 한글반야심경 봉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는 시간도 갖는다.

‘거룩한 삼보에 귀의하오며, 이 음식을 받습니다. 이 공양이 있기까지 수많은 인연에 감사하며, 모든 생명에 부처님의 기도가 가득하소서, 사바하.’ 순례 중 공양 때마다 합송하는 기도문이다. 기존 공양계의 핵심 내용을 57자로 함축해 일상에서도 활용 가능토록 했다. 특히 재가불자도 가사를 수한다. 상월선원 만행결사에서 천리순례용으로 제작한 낙자(絡字)가 재가불자들이 수하는 가사다. 낙자는 오조가사를 축소한 전통법의 중 하나로 가사색 전에 삼보문과 삼보사찰 천리순례 문구를 새겨 넣었다. 의례는 종교의 성스러움을 더해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고양시켜 주는 필수요소다.

어스를 새벽의 침묵을 깨는 순례단의 장중한 합송에 순례대중의 마음가짐은 더욱 단단하게 여물었으며, 낙자는 순



천리순례단이 울긋불긋한 꽃길과 누런 들판을 지나 지리산 오도재를 넘어 목적지를 향해 두벅두벅 나아갔다.



남도 젓줄 섬진강에서 오도재 넘어 경남 거창에 도착 시나브로 발걸음 옮겨 두 번째 목적지 해인사로 행선 불보살 가피로 모인 ‘선연’들에 순례는 멈춤 없이 계속

례단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는 계율과도 같은 의미로 다가왔다.

10월4일 화엄사의 새벽을 열고 길을 나서 천은사를 참배하고 해발 958m의 시암재에서 바람을 풀었다. 순례는 평소보다 30분 이른 3시30분에 시작됐다. 3일간의 연휴로 차량을 이용해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 까닭에 순례단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 이날 회주 자승 스님은 천은사를 참배하며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원만회향을 기원하는 기도를 점수했다.

순례단은 10월5일 지리산 성삼재를 넘어, 10월6일 한국 선종의 첫 새벽을 열었던 남원 실상사를 참배했다. 사부대중이 함께 불교적인 삶과 생태, 환경의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실상사의 품은 지리산 속이지만 남녘의 들판처럼 넉넉했다.

순례단은 이어 731m의 오도재에 올랐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고개를 넘고 꺾어서 오른 오도재는 깨달음의 길이였

다. 고려시대 보조국사가 이 고개 위에서 도를 깨달았고, 조선시대 정매선사도 이 고개를 넘다가 도를 깨달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고개 이름이 ‘오도재(悟道岬)’다. 순례단은 마치 깨달음의 문고리라도 잡은 듯한 감동을 느꼈다.

오도재 정상 지리산제일문에는 범보종찰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경남 땅에 도착한 순례단을 맞이했다. 특히 해인사 사부대중이 지리산제일문에 내건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환영하는 현수막에 자승 스님이 상월선원 동안거 결제 도중 글로 썼던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추니 수미산이 사바세 계로다’라는 글귀가 순례단의 눈길을 끌었다. 만행결사의 뿌리인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것은 그곳이 깨달음의 언덕이라는 오도재였기 때문이다.

순례길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만든다. 길 위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빨래와 잡자리,

식사, 샤워를 비롯해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특히 화장실은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120여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공간도 시간도 항상 빠듯했다.

10월7일은 천리순례가 시작된 이후 가장 긴 30km를 행설했다. 화장실 사용을 위해 대개 주민센터, 마을회관,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데 이날은 적당한 거리에 혐오할만한 시설이 없어 진행팀의 큰 고민이었다. 다행히 출발지에서 4km 떨어진 첫 번째 휴식장소부터 ‘좋은 인연’이 다가왔다. 진행팀이 고민 끝에 한 주유소를 찾아 사정을 얘기했다.

그런데 오히려 ‘찾아와 주시면 영광’이라며 흔쾌히 장소사용을 허락했다. 알고 보니 천리순례 진행팀이 찾아간 알뜰함양주유소 장숙이 대표는 순례단의 함양 방문 소식을 듣고 오도재를 찾아 직접 맞이할 만큼 독실한 불자였던 것. 장 대표는 순례단이 주유소를 찾기 1시간 전부터 불을 밝히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순례단 맞이에 여념이 없었다.

불법승 삼보를 향한 지극한 신심으로 떠난 길이기에 불보살의 가피로 모여든 수많은 선연들로 천리순례는 멈춤 없이 이어지고 있다.

구례·곡성·남원·함양·거창=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리순례 격려방문

10월8일 경남거창 회향지 찾아

“회향까지 모두 건강하길”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10월8일 경남 거창지역을 행선 정진 중인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찾아 격려했다.

이날 원행 스님은 8일차 천리순례의 점심공양지인 거창군 가조면 기미독립만세기념탑에 순례단에 앞서 도착해 직접 맞이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선운사 주지 경우, 범주사 주지 정도, 수덕사 주지 정목, 직지사 주지 범보, 동화사 주지 능중, 고운사 주지 등운, 해인사 주지 현응, 백양사 주지 무공, 송광사 주지 자공, 대흥사 주지 범상, 관음사 주지 허운, 봉선사 주지 초격,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이 동행했다.

원행 스님 “어떤 말로 벽찬 심정을 표현할 수 있겠나”며 “상월선원 만행결사를 주도한 자승 스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천리순례에 나선 사부대중



모든 분들을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공덕으로 불교가 더욱 중흥되고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전 세계에 평화가 깃들길 바란다”며 “회향의 순간까지 모두 건강하고 걸음걸음 행복하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8일차 순례는 숙영지에 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점심공양 장소에서 회향법회를 가졌다. 이에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회향법회에 동참했으며 점심공양도 함께했다. 김현태 기자

“천리순례, 불교 대중화 계기 되길 염원”

순례단장 원명스님

불교종흥 염원 담아 순례동참

힘들지만 도반 있어 견뎌내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계기로 산중에서 벗어나 도심에서 대중과 함께 하는 불교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를 시작으로 범보종찰 해인총림 해인사를 거쳐 범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회향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총 423km에 이르는 대장정의 단장을 맡은 원명 스님은 한국불교 종흥을 간절히 염원하며 지난해 자비순례에 이어 올해도 대중들과 함께 걸음을 내딛고 있다.

“하루 평균 25km의 길을 걷는 것은 분명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심지어 9개의 재를 넘는 등 지난해보다 더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사부대중이 함께 걷는 이 걸음걸음이 전법의 꽃씨가 돼 훗날 불교종흥의 꽃으로 피어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스님은 전 세계적인 질병이 창궐한 상황 속에서 순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고심했다. 스님은 “순례대중 9할 이상이 2차 백신 접종을 받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행선하고 있으며 개인 텐트를 지급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위드크로



나로 접어드는 현재, 천리순례가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심걱정보다 슬기롭게 대처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 사부대중이 자유롭게 모여 차를 마시고 소통했던 과거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스님은 또 “매일 25km를 걷다보면 개인에 따라 발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에 쥐가 나는 등 내일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길 수 있지만 함께하는 도반이 있기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신심과 원력으로 정진한다면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듯 마침내 목표한 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모든 불자님들도 마음으로 동참해 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구례=윤태훈 기자 yth92@beopbo.com

동명 스님의 선사에서 길 찾기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 것

시인에서 수행자로...

시보다 더 드라마틱한 수행자로 정진 중인 동명 스님의 선시 공부

“이번 생애에 반드시 깨치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한다지만, 나는 그마저 버렸다.

시절 인연을 기다리면서, 빨리 되기를 바라지 않고 될 때까지 끈기 있게 수행하는 것이 내가 선사에서 배운 바다.”

동명 스님 지음 | 120쪽 | 14,000원 | 141x202(양장)

조계종
출판사